

입원 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bout Hospitalization Stress

유 승 연
한남대학교

Yoo seung-yeon
Hamnam Univ.

요약

국내 입원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2000년 중반 이후 급증하였으며, 대다수의 연구가 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술적 연구였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오래 전에 개발된 Volicer et al.의 HSRS(Hospital Stress Rating Scale)에 기반하여 입원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고유한 정서에 맞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실정에 근거한 입원 스트레스를 규명하는 질적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지식체를 축적하여야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와 합의에 맞는 측정 도구의 개발로 국외에서 개발된 오래된 측정도구들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중재와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보다 많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입원 스트레스란 입원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 심리적 긴장상태 및 불편감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한 통증 등의 신체적 스트레스와 사회와 고립된 생활로 인한 사회적 지위 또는 역할의 상실, 공동생활의 불편함, 질병에 대한 걱정, 경제적 문제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모두를 포함한다 [1]. 따라서 입원 스트레스는 환자와 가장 많은 접촉을 유지하는 최일선 근무자인 간호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제로서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원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75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에 발표된 입원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을 분류 기준에 따라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입원 스트레스 연구에 대한 발전 방향과 미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향후 입원 스트레스 연구 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선택기준

1975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입원 스트레스와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84편을 분석하였다. 논문검색은 각종 데이터베이스 및 학회지 검색을 이용하

여 논문 제목이나 주요 용어, 초록에서 ‘입원, hospitalization, inpatient, admission, 스트레스, stress’를 검색어로 이용하여 관련 문헌을 도출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논문은 You HS et al.[2]이 실시한 연구동향 분석의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수행 시기,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유형, 주요 연구 개념, 관련개념, 세부 설계, 분석방법, 측정 도구 등에 따라 분류하되 연구자가 일부 수정, 보완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이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도별 연구유형

입원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유형은 학위논문이 비학위논문보다 많았으며, 학위논문 중 석사학위논문이 박사학위논문보다 4배 정도 많았고, 비학위논문에서는 국제저명학술지와 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이한 점은 입원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꾸준히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2006년 이후에 석박사 학위논문과 국내저명학술지 발표 논문이 좀 더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입원 스트레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간호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연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입원 스트레스는 간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간호사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관

심을 가져야 할 화두임을 알 수 있다.

2. 연구유형별 연구설계 분포

연구 유형별 설계에서는 양적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실험연구보다 비실험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실험연구에서는 서술적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상관성 연구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실험연구와 질적연구는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연구는 석박사 논문 및 국내저명학술지를 중심으로 발표되었고, 질적연구는 현상학과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특징적인 것은 질적연구 및 기타 연구에서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이 나타나 입원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 양상이 점차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대상자

연구 대상자로는 내외과 입원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정신과 환자 및 노인환자, 중환자, 알코올의존증, 암환자, 아동/청소년 환자, 여성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서 입원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스트레스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으나 향후 단기 입원환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입원 스트레스 관련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연구도구

입원 스트레스 관련 양적 연구에서 주요 개념인 입원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Lee SW et al.[3]의 도구를 포함하여 Volicer et al.[4]의 HSR(S(Hospital Stress Rating Scale))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대처 행동 및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인지 등의 주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일부 수정, 보완이 있었다고는 하나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들이 대부분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간호학계에서는 입원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Volicer et al.[4]가 개발한 도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독특하게 경험하는 입원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고유한 척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특성화되고 현대 병원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입원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었다.

5. 연구설계별 분석

5.1 양적 연구

서술적 연구에 사용된 주요 개념은 입원 스트레스와 대처기전 및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요인/스트레스 인

자였으며 주로 내외과 입원환자, 중환자,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상관성 연구의 주요 개념 역시 입원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으며 입원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스트레스 대처행위, 스트레스 인지, 불확실성, 자살 생각 등과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개념들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실험연구도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으며, 초기의 실험연구에서는 아로마 손 마사지, 음악요법, 간호정보 제공 및 손반사 마사지 등과 같은 한가지 중재방법이 실험적 처치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 건강 체조 프로그램, 통합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과 같이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총체적인 중재법이 개발되어 상당한 발전을 보였다.

5.2 질적 연구

질적연구도 상당수 진행되었으며, 주로 현상학과 근거이론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일상생활 기술지 및 Parse의 Human becoming theory를 적용하기도 하여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5.3 기타 연구

기타 연구는 소수 진행되었는데 도구개발 연구 및 이야기분석, 텔파이 기법 적용 연구 등이었다. 입원 스트레스와 관련된 도구개발 연구가 소수 있었으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특성화되고 현대 병원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입원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거의 없었으며, 또한 입원 스트레스 연구는 일반 입원환자가 아닌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입원 스트레스 관련 측정도구는 그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문헌 ■

- [1] Kim KH (2012) 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program on powerlessness and hospitalization stress decrease of the long-term hospitalized elderly in nursing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 You HS, So HS, Kim HS (2008) Analysis of nursing researches about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Kor J of Adult Nur. 20(6): 895-904.
- [3] Lee SW, Hah YS, Park ES (1985) A study on the rank of stressful event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J Kor Acad Nurs. 15(1):17-29.
- [4] Volicer BJ, Bohannon MW (1975) A hospital stress rating scale. Nurs. Res. 24(5):352-359.